

2000년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전망분석 Prospects of 2000 NPT Review Conference

오근배, 이한명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은 1970년 발효된 이후, 1995년에는 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여왔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은 조약의 충실한 이행을 더욱 거 세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PT 체제의 장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핵군축에 대한 최근의 요구를 살펴보고, NPT 체제의 취약요소를 분석하였다. 핵비확산 체제가 효과적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은 물론 핵무기 비보유국들도 상호 신뢰하에 핵군축을 위한 성실한 협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NPT has been entered into force in 1970, and decided to be extended indefinitely in 1995. Though nuclear weapon states have taken progressive steps to reduce nuclear weapon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non-nuclear weapon states request more complet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In this paper, recent requests on nuclear disarmament and challenges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re analyzed to foresee the future of the treaty. To keep the regime effectively, faithful cooperations between nuclear weapon states as well as non-nuclear weapon states based on mutual credibility are essential.

1. 서론

NPT는 냉전기간중, 중국의 1964년 핵실험에 자극받은 미국과 구소련의 핵확산을 방지하자는 공통의 이해에 따라 시작되었다. NPT는 핵비확산에 대한 지지가 핵무기 비보유국과 핵무기 보유국 모두의 관심이 되었으므로 UN 헌장하에서 보다 더 많은 회원국을 가지게 되었다. 조약 전문의 목적과 각 조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NPT 평가회의는 1975년부터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왔으며, 1995년에는 조약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2000년에 개최될 평가회의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대두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체제의 취약점 분석 및 향후 체제 유지에 대한 전망분석이 필요하다.

2. New Agenda Coalition

1998년 6월 9일,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남아공 및 스웨덴의 8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기존 핵무기보유국과 잠재보유국¹⁾의 핵무기의 철폐를 위

1) NPT 체제하에서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는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및 미국의 5개국이

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 이들 국가의 성명은 1995년 NPT 무기한 연장결정 이후,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철폐에 대해 보이는 미온적 태도와 1998년 5월에 인도 및 파키스탄이 행한 핵실험에 자극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핵무기보유국과 3개 잠재 핵무기보유국 정부에 대해 그들 각자의 핵무기와 핵무기능력을 제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서약할 것과, 이의 달성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핵무기의 전량 제거시까지, 핵무기보유국간에 선제공격을 앓는다는 공동 보증과,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앓는다는 소위 소극적 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서를 개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핵무기용 핵분열성물질의 생산금지 (Fissile Material Cut-off)나, 비핵지대 (Nuclear Weapon Free Zone)설치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지지하였다.

이 성명은 핵무기의 공습경보 해제 및 비활성화에 의해서 또한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 장소에서 제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NATO의 핵무기 배치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다. NATO의 동맹정책에서는, 전술 핵무기의 선제사용에 대한 논리근거가 공격적인 반확산 임무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다. 이는 해당 조약지역 밖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이 대두된 독트린의 일환으로 핵무기는, 위기지역에서의 호전적인 정부에 의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발사수단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그 목적은 NATO 군사력의 행동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지역 밖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NATO의 핵정책은 핵무기의 선제공격 독트린에 의해 핵전쟁에 대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NPT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핵무기 비보유 NATO 회원국과 핵무기를 공유함으로써³⁾ NPT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NAC는 이들의 성명 내용에 기초하여, 같은 주제인 "The Need for a New Agenda"라는 결의안 초안을 1998년 10월 27일 UN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군축 및 국제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1998년 11월 13일 기명투표에 붙여졌으며, 찬성 97표, 반대 19표, 기권 32표로 채택되었다. 이 안에 대해, 5개 핵무기 보유국중 중국은 기권하였으며, 나머지는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또한 3개 잠재 핵무기보유국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기권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 결의안은 핵군축을 위하여 그동안 핵무기 보유국들이 행한 서약과 이들이 취한 실질적인 조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한 영국은, 이 안이 1998년 5월에 행해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은 고사하고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프랑스도 3가지 반대이유를 제시하였다. 즉 첫째로 이 안은 핵무기의 감축에 대한 전세계적 현황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둘째로 제안하고 있는 의제가 현실성이 없으며, 셋째로 이 안의 발표가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냉전 고조 이후 미국이 행한 조치를 열거하였다. 즉 미국은 비전략

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월의 핵실험 이후에도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함께 잠재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된다.

2) 이들의 성명은 "Towards a Nuclear Weapon Free World : The Need for a New Agenda"라는 제목을 가지며, 이들은 스스로를 New Agenda Coalition (NAC)이라 불렀다.

3)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및 터키는 그들 영토내에 저장된 미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1971년의 15개 시스템에서 현재의 2개 시스템으로 감축하였고, 10,000개 이상의 핵탄두와 1,700개 이상의 미사일 발사장치 및 폭격기를 감축하였으며,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하였으며,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였고,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냉전 결정기와 비교하여 배치된 무기의 80%를 감축하였음을 그들이 보인 노력의 실례로 제시하였다. 결국 미국은 그 동안 미국이 보인 노력이 충분한 만큼, 이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NAC측을 대변하여서는 뉴질랜드가 자신들의 결의안은 NPT 체제를 명백히 보증하고 있으며, NPT 평가과정 강화의 중요성도 명백히 보증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결의안이 최근의 핵실험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이미 IAEA 이사회를 통하여 핵실험을 비난한 바 있으므로, 이를 비통해하는 결의안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의안은 도전적인 성명도 또는 누구를 편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그들의 결의안은 전략무기감축협상을 아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상과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사는 없음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전세계의 인류는 위원회가 핵군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결의안의 요청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그들의 성명 이유를 내세웠다.

3. NPT 준비위원회

2000년 NPT 평가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가장 최근의 제3차 NPT 준비위원회 (PrepCom)는 1999년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1997년과 1998년에 개최된 준비위원회에서는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1999년 준비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이전의 준비위원회에 비해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현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9년 평가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2000년 평가회의의 절차에 관한 사항뿐이며, 그 외 합의된 사항들도 실제적인 결정은 UN 사무국에 넘겨져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2000년 평가회의를 위한 권고안 작성을 위하여 회의기간중 의장이 준비한 최초의 작업문서에 대하여 NATO를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대부분 지지를 하였으나, 비동맹그룹, NAC국가 및 아랍국가연맹은 불만을 표시하였다⁴⁾. 특히 NATO회원국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들과 NATO 회원국인 캐나다까지도 NPT 제6조에 의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의무에 대한 더욱 강하고 확실한 표현을 선호하였다. 또한 아랍국가연맹은 1995년 중동결의안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촉구하였다. 최초의 작업문서에 대한 개정요구에 따라 수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캐나다와 NAC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었다. 이들 국가의 성명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공습경보 해제에 대한 제안, 3차 전략무기감축회의 협상을 위한 진전, 다자간 핵무기 감축협상에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시킬 것, CTBT의 조속한 발효,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핵무기 배치와 작전에 대한 투명성, 전술 핵무기의 과감한 감축,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전세계적 체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5개 핵보유국 중, 미국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은 묵시적으로 제안을 지지하였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그 중간 입장을 취하였다.

4) 비동맹그룹 (Nonaligned Movement :NAM)은 인도네시아가 이끌었으며, NAC (New Agenda Coalition)는 브라질이, 아랍국가연맹은 알제리아가 이끌었다.

핵군축에 대한 서방국가의 의견 불일치는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연유된다. 정상회담 개최전에 독일과 캐나다는 분쟁 발생시 핵무기 선제공격에 대한 NATO의 정책에 대해 토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관점은 NATO의 정책이 NPT 가입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국, 프랑스, 영국의 보장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은 핵무기의 배치에 대한 것이다. 즉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NATO 가맹국중 6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전쟁시 사용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핵무기의 배치가 핵무기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핵무기 관련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는 NPT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8년 준비위원회에서 비동맹국가들은 정식으로 이에 반대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조항을 제안하였었다.

이러한 내·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봉착하여, NATO 정상회의에서는 그들의 핵무기 전략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NATO의 조치에 대응하여 의장은 작업문서에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남아공의 안에 근거한 것으로 5개 핵보유국과 NATO의 핵무기 선제사용 정책의 종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핵보유국중에서 오직 중국만이 소극적 안전보장을 지지하였다. 영국, 프랑스, 미국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미래의 가상 적국이 사용할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러시아는 NATO의 팽창과 최근 코소보에서의 작전을 볼 때, 소극적 안전보장을 기꺼이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각국의 발표는 기존의 서방국가들이 선호하는 비핵지대⁵⁾라는 형태로 추진되는 느리고, 지역적인 접근방법을 대치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NATO 동맹국들은 또한 의장이 수정한 작업문서에 포함된 “핵무기비확산 조약의 모든 조항들은 모든 국가에게 언제나 어떤 환경하에서도 구속력이 있다”는 문맥에도 반대하였다. 이 문맥은 NAC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NATO의 핵무기 공유방침을 표적으로 한 것이다. 즉 동맹국간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쟁에서는 NATO는 NPT 제1조 및 제2조의 적용을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3차 준비위원회에서는 2개의 문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절차에 관한 사항과 2000년 평가회의 배경설명에 관한 문서이다. 배경설명에 관한 문서는 합의문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논쟁을 유발할 소지가 매우 많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1995년 중동결의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랍 및 중동국가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집트와 알제리아가 이끌고 있는 중동국가들은 문서상에 이스라엘의 미사찰 원자력시설과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심 등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NPT 비가입국임을 부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평가회의의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설명내용에 있어 아랍국가들과 그 이외 대부분의 나라들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였다. 이 문서의 목적은 2000년 평가회의의 예상되는 결과물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윤곽을 잡음으로서, 2000년 평가회의의 절차상의 전반적인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문제는 외관상 절차에 관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국가들과 서방국가들의 근본적인 의견분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집트는 멕시코와 모든 중동국가들의 지원하에, 2000년 연장회의에서는 단지 하나

5)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서명국들이 지역내에 핵무기를 사용하던지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된다.

의 예상 결과물만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즉 본 위원회의 결론과 1995년 중동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하나로 합친 결과물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1995년 NPT 연장결정은 이스라엘의 핵무장에 대한 사안을 포함하는 일괄처리 (package deal)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2000년 연장회의의 결과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 내는 것은 아랍국가의 우려를 희석시킨다는 관점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서방진영은 그러한 협상방식은 너무 제약적이며, 하나의 분야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다른 논쟁의 여지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도 합의를 방해하게 함으로써 2000년 평가회의를 완전히 실패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결국 인도네시아와 아랍국가가 아닌 비동맹국가들이 가세한 서방진영의 의견이 우세하여 예상 결과물에 대한 성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준비위원회의 시작시 의장이 준비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동결의안이 부각되기는 하였지만 2000년 평가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된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분야로 구성되게 되었다.

- 1995년 이후 NPT의 성실한 이행을 밝히는 과거평가 문서
- 평가과정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
- 1995년의 원칙과 목표에 실제적인 내용을 추가한 미래지향 문서
- 중동결의안에 대한 성과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의 출현에 따라, 3차 준비위원회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중국 및 러시아는 2000년 평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절차상의 합의를 위해 의장, 비동맹 그룹은 물론 NATO 회원국과도 작업에 임하였다. 미국도 1998년의 완전한 실패를 교훈삼아 1999년에는 보다 유연한 지침하에 움직였다. 이집트와 아랍연맹도 중동결의안의 이행을 반복하여 요구한 끝에 마침내 절차에 대하여는 합의하였다. 결국 1999년 준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2000년 평가회의에 대비한 절차상의 준비를 끝낸 것이라 할 수 있다.

4. 2000년 평가회의의 전망

1998년 한해 동안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요소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또한 이들 국가와 북한, 이란의 중거리미사일 시험, 이락의 UN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저항, 러시아의 소홀한 핵관리체제와 경제붕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99년에는 NATO의 유고공습에 의한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관계악화, 특히 중국의 핵 스파이활동에 대한 미국의 고소에 의한 양국관계 악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간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합의를 인정한 과거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를 부인하며 독립국가를 주장하는 대만의 성명 등이 위협요소로 등장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의회 (Duma)와 미국 상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START 협상,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 구축을 선호하는 미국의 정책 전환, 재래식무기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소형의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키로 한 러시아의 결정 등도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NPT 조약하에서, 핵무기보유국은 핵군비 경쟁을 종식하고 조기에 핵군축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성실하게 추구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 비보유국, 특히 NATO와 같은 군사동맹에 의해 핵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들로부터 불만을 제기시키게 된다. 이에 대한 최근의 예가 NAC의 성명으로 1999년 NPT 준비회의에서는 44개국이 이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10여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비동맹그룹 (NAM : Non-Aligned Movement)에서도 이미 주장하여 온바 있다. NAM 국가

들은 핵무기보유국들의 약속위반은 그들 자신의 NPT 탈퇴나 핵무기를 습득하지 않겠다는 상호보증에 대한 위반을 정당화시킨다고 주장하여 왔다. NAC는 이러한 위협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을 서구국가인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와 그 외 멕시코, 브라질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은 핵무기보유국을 주저하게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는 START 협상에 의한 그들의 장거리 핵무기 탑재 미사일과 폭격기의 감축이야말로 그들이 NPT에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자부하여 왔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START II는 비록 1993년에 서명되었지만 러시아 의회인 Duma의 빈번한 투표지연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체코, 헝가리 및 폴란드를 동맹으로 흡수한 NATO의 러시아 방항으로의 세력확장에 대한 불만도 투표지연의 원인중 하나이다. 또 다른 지연원인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Theater Missile Defence) 구축계획을 들 수 있다. Duma는 이 계획을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지연시키려는 러시아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1998년 12월에 Duma는 다시 START II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였다.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UN 안보리의 위임없이 이라크의 방공시설을 폭격하였기 때문이다. Duma가 다시 새로운 투표일자를 정한 1999년 3월에는 NATO의 유고 공습이 있었다. 이 공습 역시 안보리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것이다. Duma의 START II에 대한 투표는 1999년 12월에 있을 Duma 위원의 선거 이후로 연기 될 가능성이 있다. Duma가 결국은 START II를 승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다시 미국 상원에서 만료기간을 몇 년간 더 연장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수적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와의 합의에 대해 보이는 불신감은 러시아 Duma 의원이 미국에 보이는 불신감에 못지 않다. 즉 START II가 1993년에 서명되기는 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의원들이 선거에 의해 상당히 교체되기 전에는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START I 에 의해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감축해 왔고, 해외에 배치된 비전략 핵탄두를 회수하여 처분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도 장거리 핵미사일과 탄두를 감축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핵무기 보유국의 감축을 핵무기 비보유국이 참여하여 검증한 적은 없다. START I에 의해 양국간에 미사일 폐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미사일의 탄두 해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상당한 양의 핵무기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감축되었지만 핵무기 비보유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안보위원회는 최근의 결정에서 러시아가 재래식무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형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분명히 NATO의 세력 확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러시아의 경제붕괴에 따른 재래식군사력의 약화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NATO의 유고공습 후 러시아와 중국은 UN헌장이 미국이나 NATO의 공격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면, 그들이나 다른 잠재적인 폭격대상국가는 이러한 공격을 지연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낫겠다고 암시하였다. 이것은 핵무기 경쟁의 재연을 뜻할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군축협상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핵무기 비보유 NPT 회원국에게 핵무기 보유국들이 NPT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핵군비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상호 신뢰하여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기는 무척이나 어려워졌다.

핵군축 협상에서의 또 다른 위협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갖추기로 한 미국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할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우산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의 재고를 늘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과 일본 및 대만을 위한 미사일방어계획의 결과로, FMCT 협상에 대

한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탄도미사일 결정과 유고폭격은, 중국 및 러시아로 하여금 새로이 미국과의 핵 및 미사일 경쟁을 초래케 할 수도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양국 모두 CTBT를 발효시키지 않고 있다.

핵무기보유 5개국은 모두 CTBT에 서명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만이 이를 발효시켰다. 미국은 상원에서 CTBT의 발효를 거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Duma나 중국의 인민회의도 CTBT의 발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은 핵무기보유 5개국과 원자료를 소유한 핵무기 비보유 39개국 모두가 발효시키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관련 비밀을 훔쳤다는 미국의회 Cox위원회의 보고서는 두 나라 상호간의 불신을 증대시켰다. CTBT의 좌절은 대다수의 국가들에게는 NPT가 그들에게 한 약속의 완전한 실패로 인식될 것이다. 즉 그들이 NPT에 가입하여 핵무기를 습득하거나 시험하는 권리를 포기하면, 5개 핵무기 보유국은 CTBT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하며, 중국에는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중국-러시아의 관계 악화가 NPT의 이행을 악화시키고 핵비보유국의 탈퇴를 초래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준비위원회에서의 논쟁은 NPT 체제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대한 협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도 있다

- 냉전 종식후의 핵무기와 미사일관련 재료와 기술의 수출제한
- NPT 회의의 조직 및 지도적 역할
- 다자간 화학무기협약 협상, CTBT 협상 및 양자간 START 조약을 위한 협상
- 인도/파키스탄 분쟁, 남북한 분쟁 또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방지에 있어서 미국, 중국, 러시아간의 우호적 관계정립

따라서 NPT하의 의무에 따른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신의있게 진행함으로써, 핵무기 감축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NPT와 핵비확산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핵무기보유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능력에 대처하지 못하는 조약에 실패한 중동지역의 핵무기 비보유국에 의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군축 협상을 신의있게 진행함에 있어서 실패한 것을 NPT 탈퇴에 대한 추가적인 당위성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중동평화안이 성공된 이후야 핵무기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2000년 평가회의 이전에 중동평화안이 진전을 보인다면 이는 이들 국가들이 평가회의 석상에서 또는 그 이전에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2000년 NPT 평가회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문제정립, 둘째 인도,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의 NPT 미가입과 중동지역 분쟁, 셋째 수직적 확산방지 수단인 CTBT의 가까운 장래의 발효 불투명, 넷째 FMCT를 위한 논의의 미진함을 들 수 있다.

결국 핵비확산 체제가 효과적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간의 관계는 물론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간,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간의 관계도 개선하기 위한 지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원자력연구소 기관고유사업인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다.

참고문헌

1. "Toward a Nuclear Weapons Free World : Time for a New Agenda", 1998. 6. 9, New Agenda Coalition
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ifty-third session First Committee Agenda item 71 A/C.1/53/L.48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Toward a Nuclear Weapons Free World : Time for a New Agenda", 1998. 10. 27,
3. <http://www.clw.org/pub/clw/coalition/newagvot.htm>, General Assembly Fifty Third First Committee Meeting, Subject : The Need for a New Agenda, Recorded Vote Adopted November 13, 1998, Council for a Livable World
4. <http://www.clw.org/pub/clw/coalition/newagres.htm>, Coalition to Reduce Nuclear Dangers, Council for a Livable World
5. <http://www.basicint.org/PrepCom99%20results.htm>, The 1999 NPT PrepCom, 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
6. NPT/CONF.2000/PC.III/WP.1, Draft Final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200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99. 5. 21
7. <http://www.basicint.org/nuclear/prepcom99/99Chairman%20Paper%20Rev1.htm>, Chairman's Working Paper-Rev.1, 1999. 5. 20
8. 핵비확산핸드북, 핵비확산조약, pp273-289, 1997, 한국원자력연구소

<표 1> NPT 조문 1조, 2조 및 6조

조 문	내 용
1 조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형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 조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6 조	조약 당사국은 조속한 일자 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표 2> 1995년 중동결의안의 주요내용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회의에서 결의된 중동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중동지역 평화를 위한 과정의 의도와 목표를 지지하고, 이것이 중동 비핵지대화에 기여함을 인지
- NPT 미가입국의 가입 및 IAEA사찰수용 촉구
- 중동지역의 미사찰 핵시설을 우려하며 이들 시설 보유국의 IAEA 사찰수용 촉구
- NPT 의 전세계적 실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미가입국의 예외없는 가입 촉구
- 중동 비핵지대 실현을 위한 효과적 검증체제 수립 촉구
- 중동 비핵지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모든 NPT 가입국 특히 핵보유국의 협력과 노력 촉구